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킨다

2010. 9. 6 제71호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목 차 >

요약

- I. 고령사회의 새로운 주역, 베이비붐 세대
- II. 新노인이 될 베이비부머들의 능력과 취향
- III.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방향

요 약

향후 고령사회의 주역인 베이비붐 세대의 부각

서울의 허리가 변화하고 있다. 서울의 중심세대로서의 40, 50대인 베이비붐 세대들이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하면서 이 세대가 만들어 나갈 도시의 미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왜냐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까지의 중노년 세대와는 다른 사회경제적, 가치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출산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babyboomer)들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2010년 기준 만47세 이상 55세 이하의 연령집단으로 서울 인구의 14.8%(200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인 151만여 명을 차지하며, 2010년을 기점으로 은퇴를 시작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1960~70년대 교육을 받고 1980년대에 취업과 결혼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면서, 주택·소비·자녀교육에 있어 우리사회의 변화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으로 인해 이 세대 초기연령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 이후 어떤 사회변화가 야기될 것인지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고령사회의 중심세대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이기 때문이다.

新노인이 될 베이비부머들의 능력과 취향

서울의 베이비부머 중 가장 빠른 출생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은 14.9%로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시작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이 시기의 사회현상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 베이비부머들의 36.5%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이며, 26%는 전문사무직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집단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가구주의 경우 월소득 400만원 이상 가구가 전체 50%를 차지하며, 59%는 자기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 25개구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을 보면 강동구, 양천구, 도봉구 순으로 높으며,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중심적이며 자녀중심의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부중심 가치는 고령세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들 세대는 이웃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아직은 소극적이나 노력중이며 자기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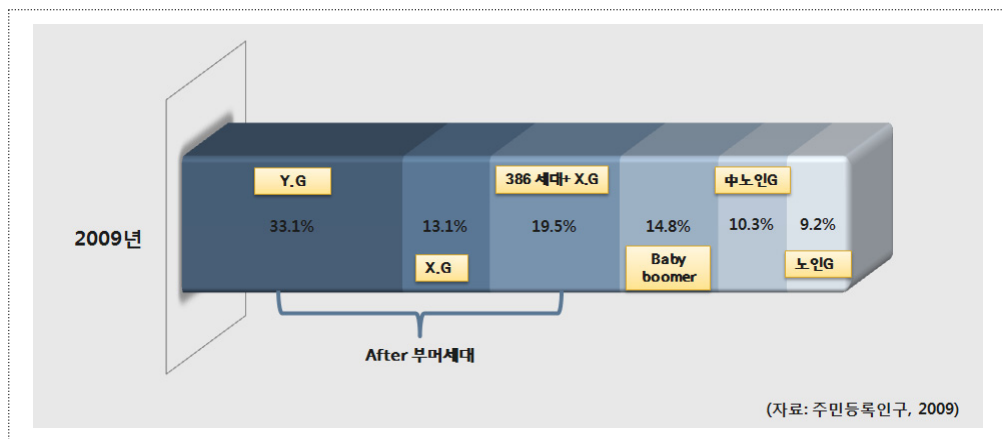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정책개발 필요

서울의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세대의 부양과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깁 세대'로서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이들은 향후 자녀와 근거리의 독립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한다. 따라서 이 세대의 현실적 위상과 향후 주거형태 변화를 고려한 주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자기개발 의지가 강하므로 고령세대에 진입하더라도 적극적이고 참여적이며 활동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세대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일과 활동, 커뮤니티 중심과 이동성을 고려한 종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베이비붐 세대를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활기찬 노년' 조성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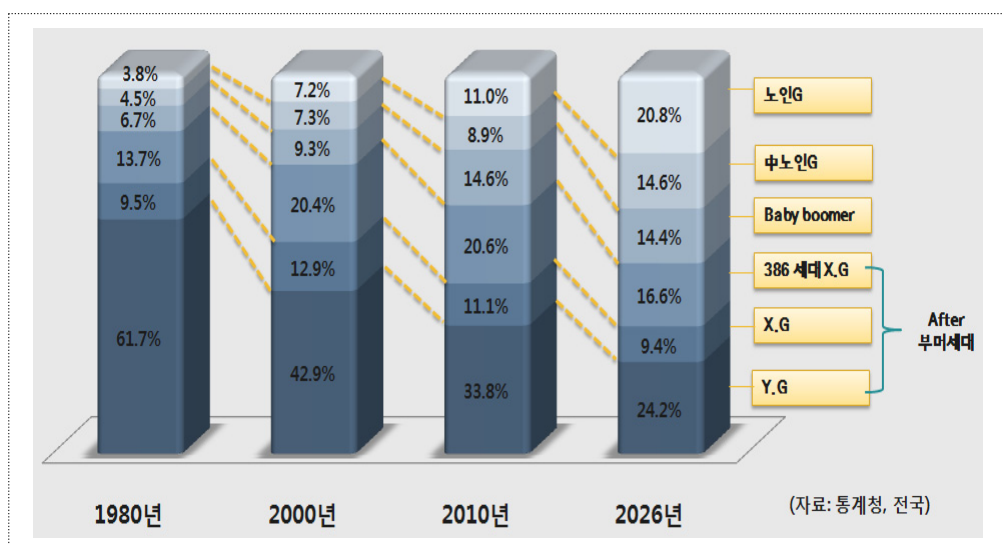
I. 고령사회의 새로운 주역, 베이비붐 세대

향후 고령사회의 중심세력인 베이비붐 세대, 서울 인구의 14.8%

- 서울의 베이비부머는 2009년 기준 151만여 명으로 서울인구의 14.8% 차지
 - 전국의 베이비부머는 2010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 인구의 14.6%인 712만여 명



[그림 1] 서울의 인구구성



[그림 2] 한국의 인구구성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의

베이비붐 세대란 전후 출산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기간 동안 나타난 세대로, 엄밀하게 정의된 개념 이라기보다는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세대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개념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으로 미국 인구의 30%를 차지. 영국에서는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으로 전체인구의 28.5%에 해당하며, 일본의 경우는 1946년부터 1949년에 태어난 세대로 ‘단카이’ 세대로 불리며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를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집단으로 보며, 이는 전국 인구의 14.6%에 해당

- 2010년은 베이비부머 은퇴 시작 시기로 향후 많은 변화를 예상
 - 베이비부머의 가장 연장자인 1955년생 집단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자산변화에 따른 사회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증대
 - 베이비붐 세대들은 1960~70년대 교육을 받고, 1980년대 취업과 결혼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여, 주택·소비·자녀교육에 있어 독특한 문화를 형성
 - 2010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이후 이들 집단의 경제능력 변화, 주거패턴과 소비형태의 변화, 그리고 고령사회의 본격적 시작에 따른 면밀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

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사회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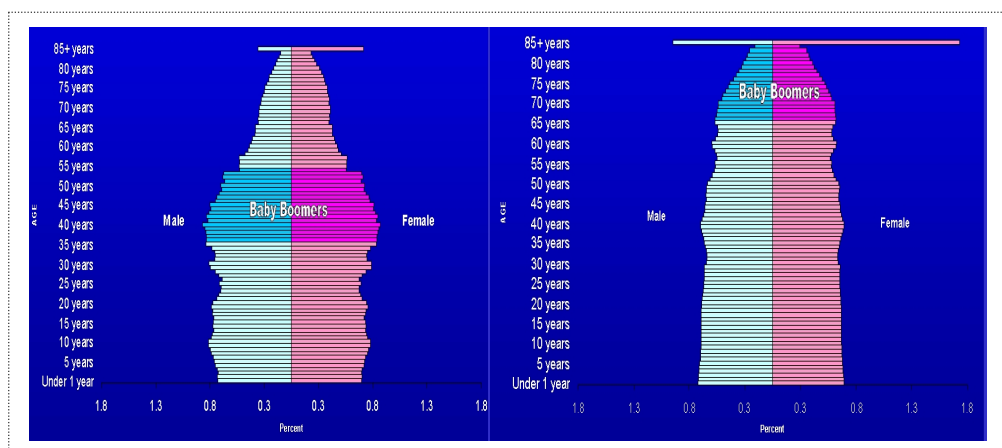
-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사회변화의 중심 세력
 - ‘me generation’으로 불리는 미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긍정적이고 ‘일중심적’이며, 책임감과 ‘할 수 있다(can-do)’ 태도를 견지
 - 이는 1946년 이전에 태어나서 ‘명령과 위계’에 복종하고 ‘자기 희생적’인

가치관 중심의 'greatest generation'과, 독립적이지만 회의적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심에 두는 'after-boomer 세대'와는 구분되는 집단임을 의미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IT 세대
 - 이 세대의 74%는 인터넷을 사용하고, 이들의 43%는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41%는 '즐거움'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

□ 베이비붐 세대는 캘리포니아의 LA 카운티에 2백4십만여 명이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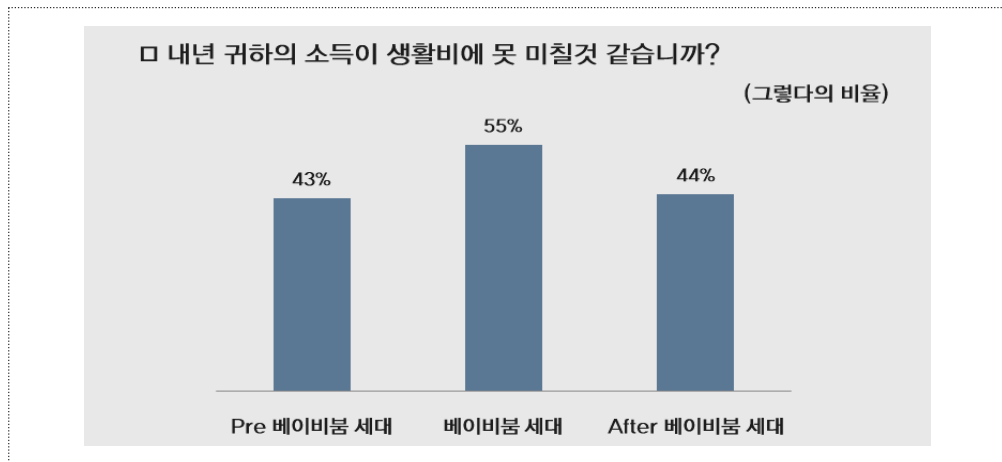
- 미국 베이비부머 분포를 보면 캘리포니아주가 8백9십만여 명으로 1위이며, 다음으로 텍사스주 5백6십만여 명, 뉴욕주 5백1십만여 명의 순
 - 전체 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버몬트주 30%, 메인주 29.8%, 뉴햄프셔주 29.7%의 순
 - 베이비붐 세대는 인구피라미드에서 2000년에는 허리에 해당하는 코호트(cohort)이지만, 2030년 고령사회에서는 고령세대의 중심이 되어 이들 세대의 가치, 소비패턴 등이 사회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출처: USA Census Bureau

[그림 3] 미국의 2000년과 2030년 인구 피라미드

- 한편 미국의 사회변화 과정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던 베이비붐 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른 세대에 비해 ‘우울한 세대’로 변화하고 있음 (Pew Research Survey, 2008).
- 미국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다른 세대보다 더 높으며, 자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6.2점)가 베이비붐 이전 세대(6.7점)나 이후 세대(6.5점)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조사



출처: Pew Research Survey,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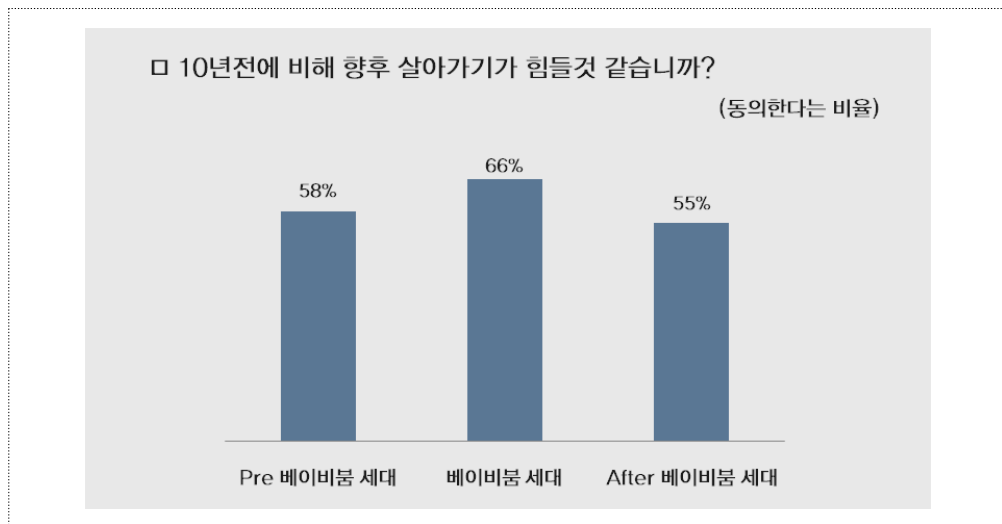
[그림 4] 미국의 세대별 소득 불안감에 대한 동의 정도



출처: Pew Research Survey, 2008

[그림 5] 미국의 세대별 삶의 질 평가 비교

- 또한 10년 전에 비해 앞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6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자신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무게에 대해 힘겨워하고 있는 형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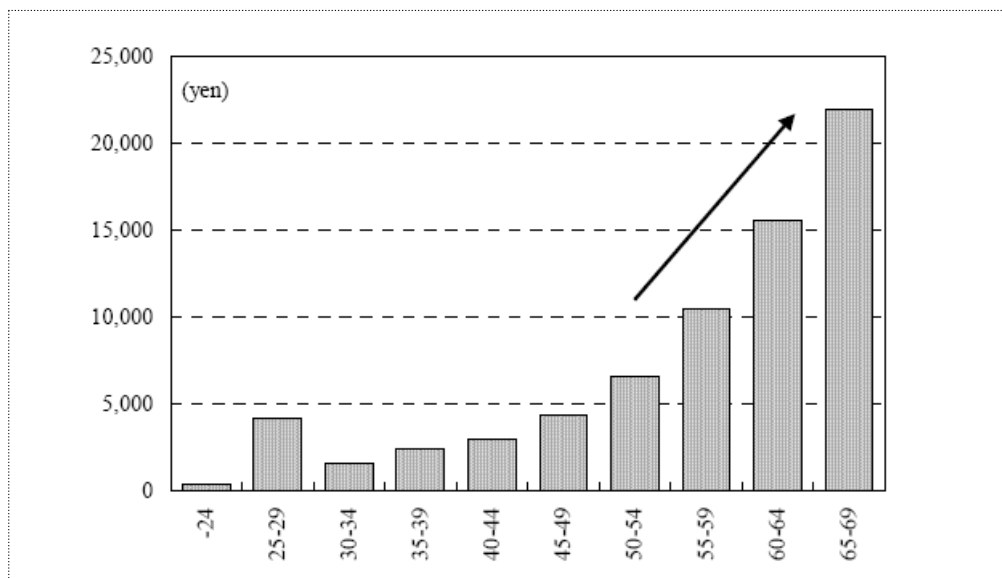


출처: Pew Research Survey, 2008

[그림 6] 미국의 세대별 10년전 대비 생활의 어려움 정도

- 영국 베이비부머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 활동적이고 사회적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평생직업을 가질 수 있는 수혜 세대
 - 전체인구의 28.5%에 해당하는 1천7백만여 명의 영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주택, 투자, 연금)은 영국 전체 부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세대는 34%, 45세 미만 세대는 14%를 점유
 - 영국 베이비부머는 베이비붐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에 비해 일찍 결혼하고, 가구원 규모도 2.2명으로 이후 세대의 1.9에 비해 높은 실정
 - 이들 세대의 여성들은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세대
 - 한편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집중된 부와 혜택의 편중에 대해 영국사회에서는 세대 불평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형편

- 일본의 단카이 세대는 인구의 5.4%인 691만명으로 1990년에 은퇴가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소비와 활력의 주체로 인정
 - 남성인구의 5.6%, 여성인구의 5.3%가 베이비붐 세대
 - 대도시 동경의 베이비붐 세대는 동경 전체인구의 5.85%인 7백3십만여 명
 - 일본의 베이비부머들은 전체 개인자산의 10%를 소유
 - 베이비붐 세대는 식음료, 가구, 교통, 의료소비, 주택관련, 여행경비 등의 지출에 있어 매우 적극적이며 신소비계층으로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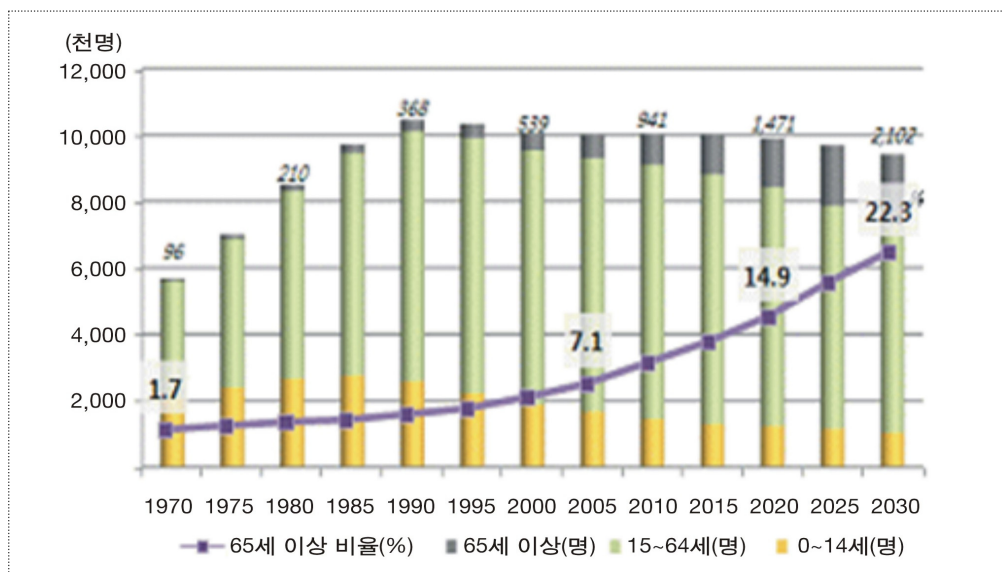
출처: 2005년 일본 경제국

[그림 7] 일본의 연령별 주택관련 월 소비지출

II. 新노인이 될 베이비부머들의 능력과 취향

2020년 서울의 베이비부머들이 고령세대(65세)로 진입하면서 서울의 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

- 서울의 베이비부머 중 가장 빠른 출생세대인 1955년생이 65세가 되는 2020년의 서울의 고령인구 비중은 14.9%로 전망
-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낮춰 20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4.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
- 201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8.1명이 노인 1명을 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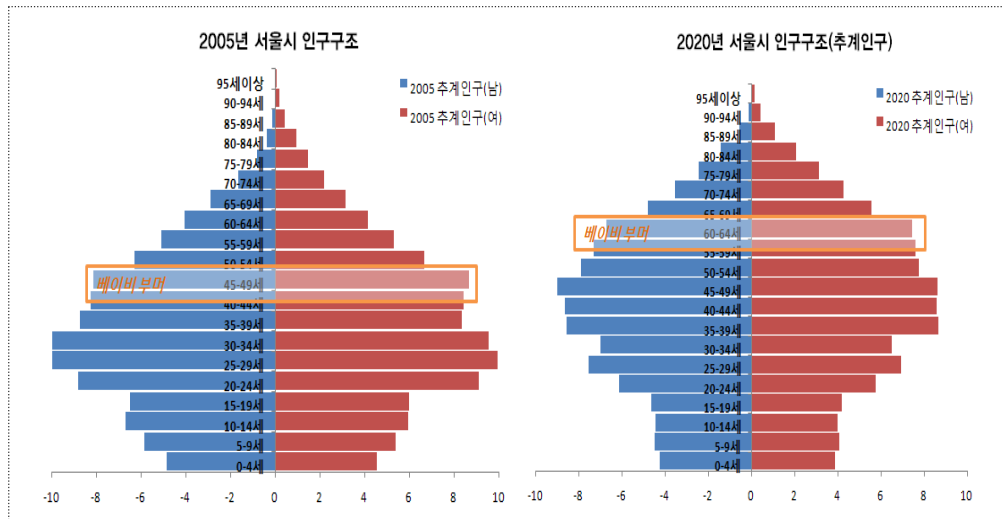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추계인구

[그림 8] 서울의 인구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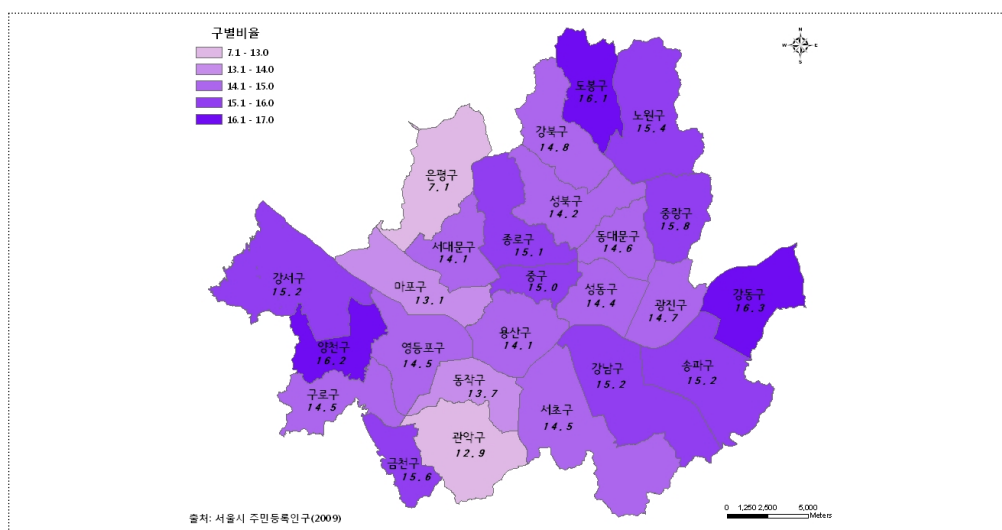
- 고령사회 진전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세대 중심축으로서의 역할
- 2005년 서울시 인구구조는 20대 후반과 30대 전반 연령 코호트가 가장 긴 축을 형성하는 젊은 인구구조의 형태

- 한편 2020년 고령사회에서는 30대 전반세대가 줄고, 40대축이 길어짐과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사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그림 9] 2005년과 2020년 서울의 인구 피라미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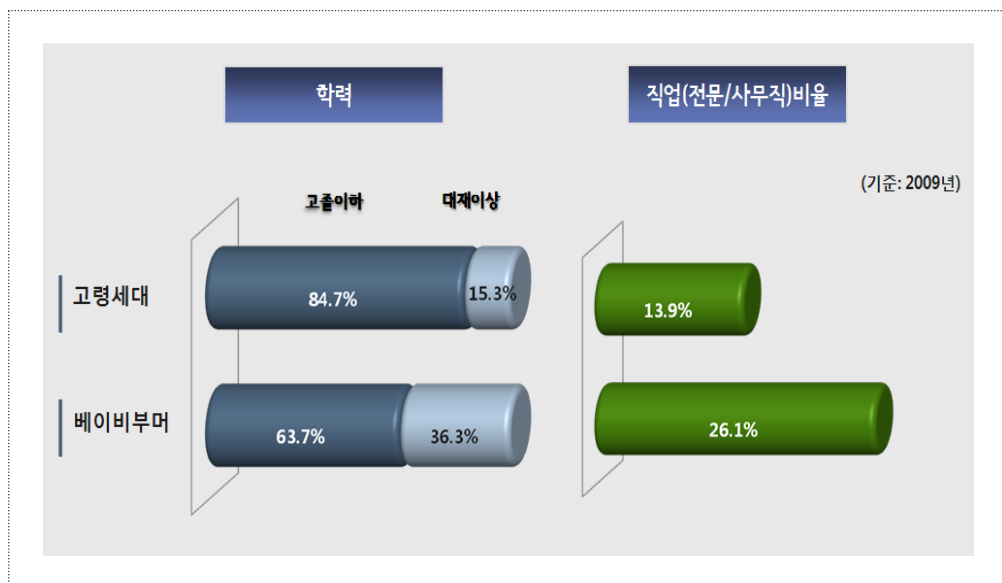
- 서울 25개구의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비중은 강동구, 양천구, 도봉구 순
- 강남 3구 중에서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높은 수준



[그림 10] 서울시 구별 베이비붐 세대 비중(2009년 주민등록인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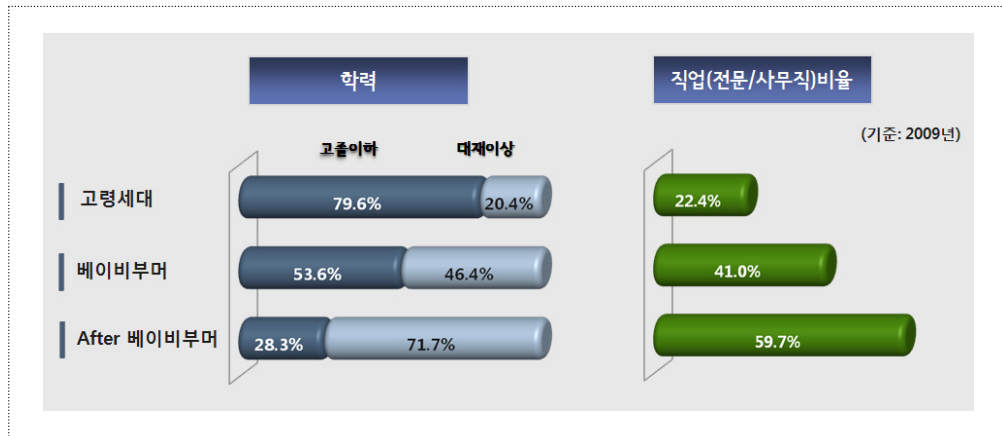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고령세대에 비해 고학력 전문집단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능력을 보유

- 베이비부머의 36.3%는 대학교 재학 이상의 학력 소유자이며, 26.1%는 전문 사무직종에 종사
- 현재 고령세대에서 대졸 이상 학력비율은 15.3%이며, 전문사무직 비율은 13.9%에 불과
- 베이비붐 세대의 77%는 중산층 귀속의식을 소유



[그림 11] 고령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학력 및 직업(2009 서울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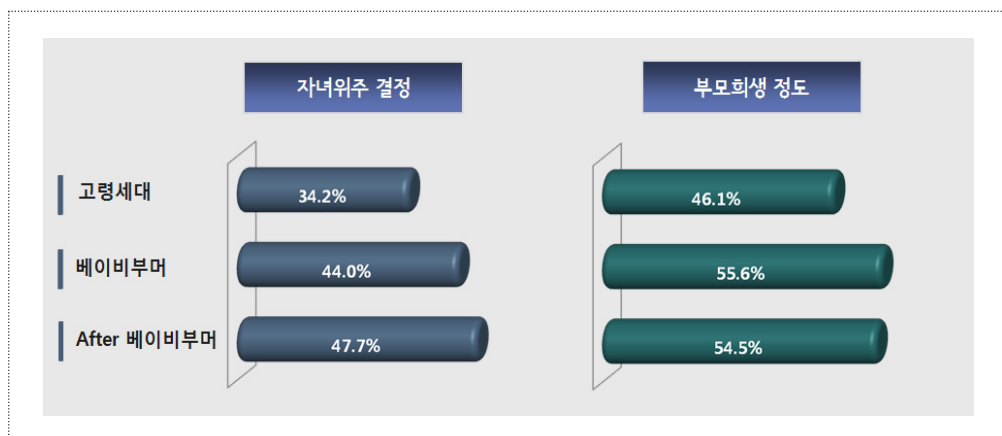
- 한편 베이비부머가 가구주인 경우 대졸 이상자가 46.4%이며, 전문화이트 직종 종사자는 41%로 고령세대 가구주와는 확연히 다른 경제능력을 보유
- 이 경우 월소득 4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전체 50%이며, 자가주택 소유 비율은 59%



[그림 12] 가구주의 학력 및 직업 :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비교
(2009 서울서베이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가족중심적, 특히 자녀중심의 가치체계를 보유

- 베이비부머 가구주는 물건을 사거나 여가를 즐길 때 자녀위주로 결정한다는 비율이 44%로 고령세대보다 약 10% 정도 높은 수준
- 자녀를 위한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역시 55.6%로 고령세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13] 베이비부머 가구주와 기타 세대의 가치체계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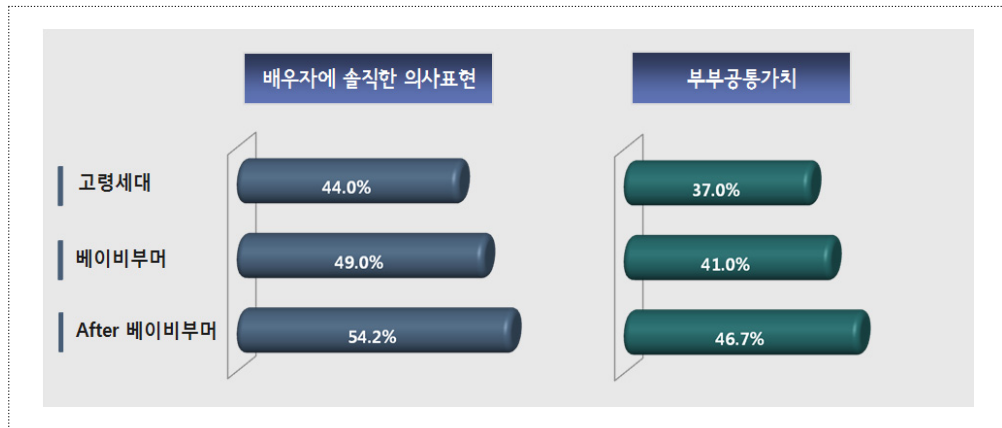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가치는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반영되는데, 월평균 교육비는 75만9천원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
 - 고령세대는 57만7천원,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는 60만9천원



[그림 14] 세대별 평균교육비(2009 서울서베이 기준)

베이비붐 세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고령세대와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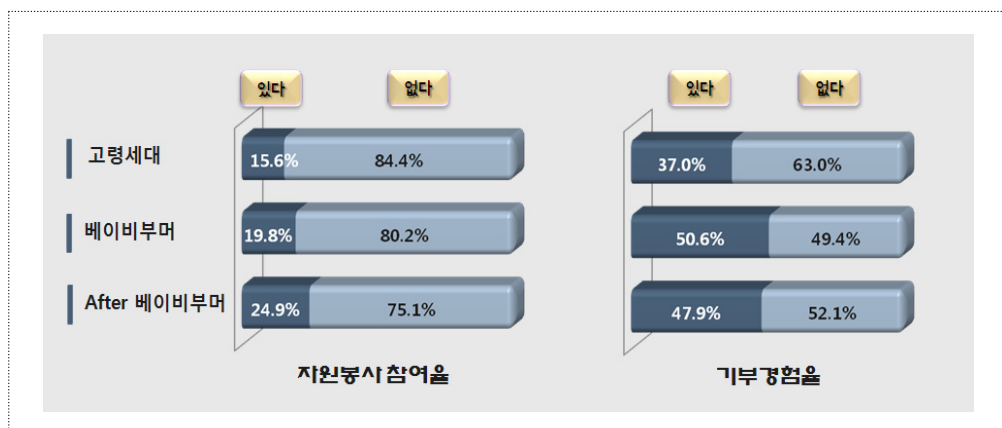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중심주의 가치와는 달리 부부중심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고령세대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 배우자에게 솔직한 의사표현을 하느냐에 대해 베이비붐 세대의 49%가 동의하고 있는데, 고령세대의 경우 44%,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54.2%가 '그렇다'라고 응답
 - 부부가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41%가 '그렇다'라고 응답



[그림 15] 세대별 부부가치의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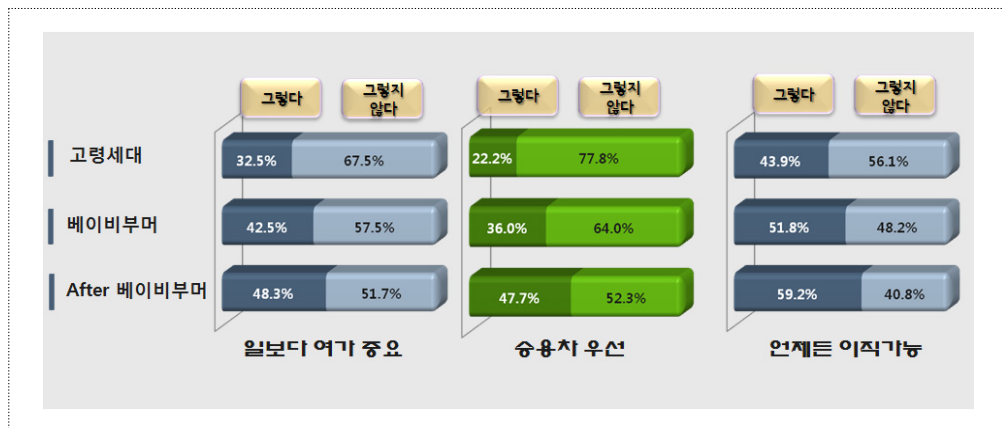
베이비붐 세대는 이웃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아직은 소극적이나 노력 중이며, 자기개발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유

-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9.8%이며, 어떤 형태로든 기부를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50.6%
- 한편 이들은 1년에 1.52회 정도 영화관을 가며(고령세대 0.61회), 10명 중 7명 정도는 자기개발을 위해 교육 받기를 희망



[그림 16] 세대별 사회적 참여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 베이비붐 세대의 소비행태는 이후 세대와 유사
 - 베이비붐 세대는 고령세대에 비해 일보다는 여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 이직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도 고령세대보다는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17] 세대별 소비형태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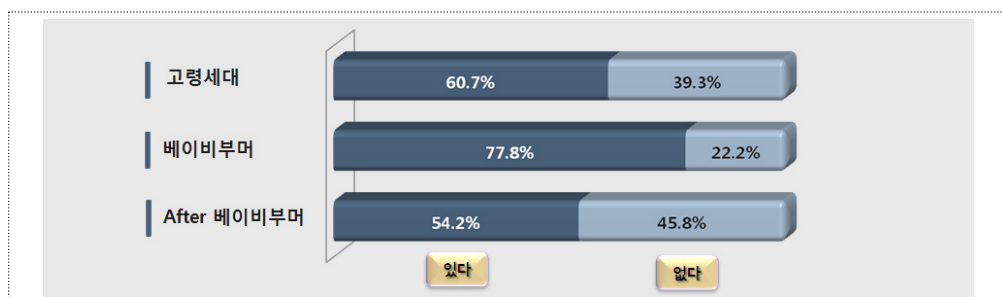
III.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정책개발 방향

베이비붐 세대를 지방정부의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

- 베이비부머들이 가진 상대적 고학력 전문능력을 향후 고령사회에서도 사회의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활기찬 노년' 조성 정책 개발이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사회 도래가 세대 간 갈등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원'으로 활용할 정책 방안을 마련

'낯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주거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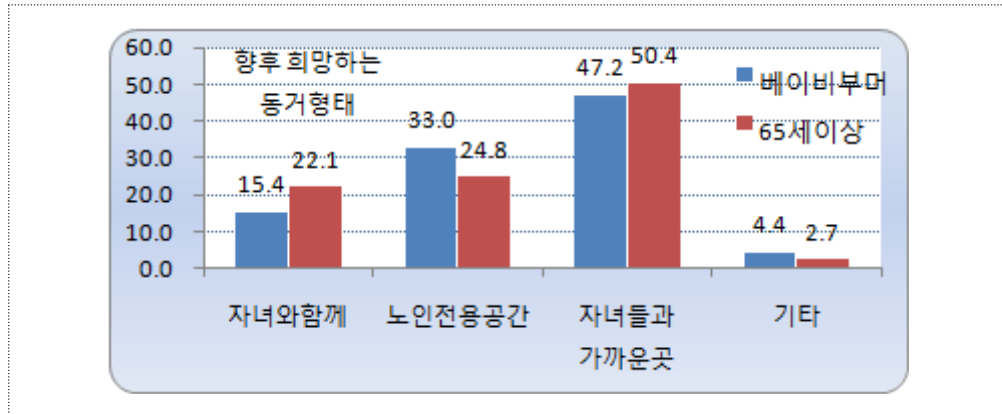
- 부모세대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세대에 올인(all-in)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정작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형편
 - 이러한 위기감으로 스스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비율은 77.8%로 고령세대의 60.7%, 이후 세대인 54.2%보다도 높은 수준



[그림 18] 세대별 노후준비율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 또한 베이비붐 세대들의 15.4%만이 향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자녀들과 가까운 곳이지만 독립적인 공간에서 노후를 지내고 싶다는 의견이 47.2%, 실버타운 등 노인전용 공간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은 33.0%

- 고령세대의 경우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 22.1% 수준



[그림 19] 향후 희망하는 주거형태 비교(2009 서울서베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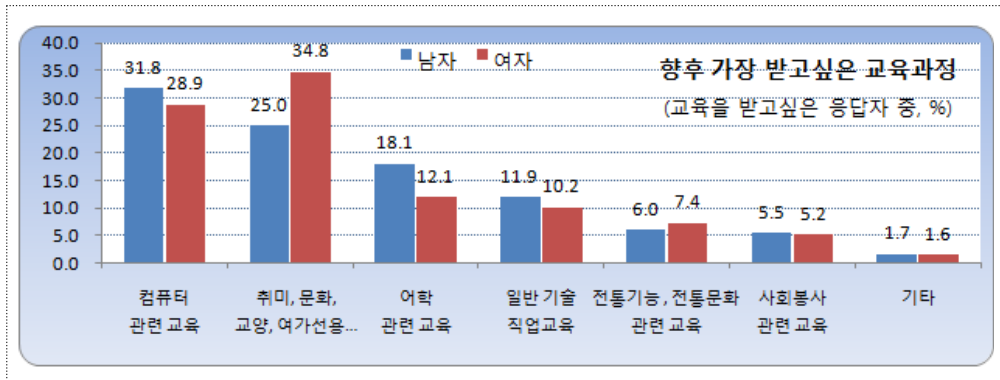
- 베이비붐 세대의 독립생활 선호 경향을 고려한 주거정책 개발이 필요
 - 2009년을 기준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44%는 단독주택에, 37%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가소유 비율이 59%에 도달
 - 이들 중 자가소유자들이 전세소유자들보다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 주거형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 세대의 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능력을 활용할 노동력의 ‘지속가능성’ 정책이 필요

- 베이비붐 세대가 가진 능력이 고령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고령친화 산업 육성이 필요
 - 베이비붐 세대 중 남성들은 향후 학습하고 싶은 것으로 컴퓨터(31.8%), 어학(18.1%), 기술관련(11.9%) 등의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많이 선택하였으며,

취미나 여가 관련 교육은 25.0% 수준

- 베이비부머 여성들의 경우 취미·문화·여가선용 관련 교육을 받고 싶다는 비율이 35%로 가장 높은 수준



[그림 20] 희망하는 자기개발 교육프로그램(2009 서울서베이 기준)

- 유럽의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세대를 위한 Active Aging 프로젝트 처럼 은퇴시기를 연장하거나 고용평등연령규칙(Employment Equality Age Regulation, EEAR)을 적용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 노동력의 '지속성'을 유지할 정책마련이 필요

베이비붐 세대의 활동적인 미래를 위한 멘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

-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세대로 진입하더라도 현재의 고령세대보다 활기차고 활동적인 현역세대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베이비붐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적극적이고 참여적 성향을 보이고 있어, 지난 1년간 지역모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지 13%만이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

- 반면, 고령세대의 23%, 베이비부머 이후 세대의 26%가 참여경험이 없는 실정
 - 베이비붐 세대들은 친목모임, 동창모임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적극적
-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한 고령자 멘토 프로그램, 지역사회기반의 지식 연결망 그룹 형성 등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와 다른 세대 간의 사회적 통합성을 증진시키도록 유도
- 新노년을 형성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참여 프로그램은 일과 활동, 커뮤니티 중심과 이동성(mobility)을 고려한 종합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

변미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02-2149-1303

miree21@sdi.re.kr